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김태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77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김태수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경훈,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지향, 김현기, 김형재,
남창진, 문성호, 신복자,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정지웅, 최민규 의원(17명)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세계유산 주변 지역의 정비와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함

2. 제안이유

- 최근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인근 개발계획부지 내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계획의 확정 전 국가유산청의 사전검토와 세계유산영향평가서 검토를 거치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함
- 이 개정령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실증적 영향분석 없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내 위치한 10개의 세계유산 인근지역의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에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주택공급 위축 및 지역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중앙정부가 주택공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과 도시계획 체계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국가유산청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개발계획부지 내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자로 하여금 계획 확정 전 사전검토요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토록하고,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10개의 세계유산이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된 곳은 종묘 1개소 뿐이다. 종묘 앞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운4구역에 대해서는 소급입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지구 지정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유산청의 입법예고는 세계유산 인근 지역의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유산 주변 지역의 도시 관리체계 및 각종 영향평가·심의·협의 절차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주택공급·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중복, 불확실성 확대,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역사문화자산 보존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개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실증적 영향분석 없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주거정책 전반에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주택공급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계유산 보존은 국가적 책무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도시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이라는 공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하위법령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과 시민의 주거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중앙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과 도시계획 체계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개정령안의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2026년 2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